

연습으로 전주남부시장 화재 막는다

전주시, 민관합동 소방모의훈련 실시... 화재초기대응·소방차 진입훈련 등 진행

전주시가 소방안전 훈련을 통해 남부시장을 화재 없는 안전한 전통시장으로 지켜나가기로 했다.

시는 23일 남부시장에서 완산소방서와 남부시장상인회, 일방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합동 소방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추워진 날씨로 인해 전열기구 사용이 늘어나는 등 동절기 화재사고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고,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훈련내용은 △화재발생 최초목격부터 건물 내 화재통보 △119신고 연락체계 가동 △시민 및 관광객 대피 유도 △시장 내 소화장비 등을 이용한 초기대응 △소방차 진입훈련 등으로, 시장상인들도 참여해 실천과도 같은 훈련이 진행됐다.

시는 이번 소방합동훈련을 위해 그간 소방서와 상인회 등 전통시장 화재안전 관계자와 전통시장 동절기 화재예방에 대한 간담회를 가져 왔다.

또한, 시와 남부시장 상인회는 동절기 화재 예방을 위해 야시장 및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소방·전기안전 및 화재상황 발생 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시장 내 야간순찰을 통해 점포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야시장 운영시간에는 인근에 소방차 1대를 배치해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을 대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전주지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소방과 전기, 가스,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다. 또, 시

장관리자인 각 상인회에 화재예방을 위한 점검 및 순찰을 강화해줄 것을 적극 당부하고 있다.

전주시 전통시장육성지원사무소 관계자는 "지속적 안전점검을 하고, 점검결과 시정 및 개선 가능한 부분은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며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공모신청 등 예산을 확보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에는 전통시장 개별 점포당 12만원이내에서 화재공재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예술상 수상자 모집

12월6일까지 10개부문 각 1명씩

전주시는 12월6일까지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이바지한 예술상 수상자 10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부문은 문학, 음악, 국악, 무용, 미술, 사진, 연극, 영화, 연예, 건축 등 10개 부문이며, 각 부문별 1명씩 선정한다.

접수 대상은 현재 전주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전북 내에 거주하는 자로, 각 부문별 문화예술 단체의 장 또는 각 부문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접수는 공적서, 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전주시 문화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수상 후보자 중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내달 말에 열리는 '제28회 전주시 예술상 시상식'에서 수상자에 대해 시상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문화예술의 도시인 전주의 위상에 걸맞게 앞으로도 지역의 예술인을 적극적으로 발굴, 격려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예술상'은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활동을 지원해 문화예술도시 전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1990년 제1회 시상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73명이 이상을 수상했다. /김민근 기자

수능 수험생 10여명 경찰 도움으로 무사히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23일 전북지역에서 수험생 10여명이 경찰 도움을 받아 무사히 시험장에 입실, 시험을 보게 됐다.

이날 오전 7시38분께 경찰은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수험생 A(19)군을 시험장까지 안전하게 수송했다.

10분 뒤 사대부고와 전주사대 부고를 착각한 한 수험생을 순찰차에 태워 고사장으로 옮겼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날 도내 62개 시험장에 순찰차와 사이드카 120여대를 배치하고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 등 450여명을 투입해 수험생 편의를 제공했다.

경찰은 이날 수험생 수송, 수험표 찾기, 빈 차 태워주기 등 모두 13건의 편의를 제공했다. /이상민 기자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노인회 전주지회 부설 노인대학은 23일 지회 강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양영환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전영배 지회장과 조희정 노인대학장을 비롯한 지회 임원, 졸업생과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졸업식'을 가졌다.

전주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10명 모집

27일~12월1일까지 접수... 2018년 1단계

전주시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2018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를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공근로사업 모집 인원은 총 110명으로, 내년 1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일반노무와 행정업무로 나눠 담당하게 된다.

주요 사업은 ▲DB구축지원 ▲서비스지원 ▲환경정화 ▲기타사업 등 4개 분야이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인 자료

실업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 행정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실업급여 수급권자와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재학생(야간대, 방통대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발은 내달 28일부터 이틀간 개별 통보되며, 참여자의 노임 단가는 보통 65세 미만 단순노무의 경우 간식

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해 1일 3만 3,120원이다. 근로시간은 1일 4시간, 주 5일 근무이다.

김봉정 전주시 창업청년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저소득층과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창업청년지원과(063-281-2555)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근 기자

눈길에 미끌어져... 순천~완주 고속도로에서 20여대 연쇄추돌

23일 오전 11시 50분께 전북 임실군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 군영교 다리 위에서 차량 20여대가 연쇄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6명이 경상을 입었다. 그러나 숨진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갑자기 내린 눈에 미끌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완산구, 대중여가시설 안전점검·불법영업 지도점검

완산구는 오는 30일까지 대입수능시험을 전후로 특히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아질 것에 대비해 안전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대중여가시설 안전점검 및 불법영업 지도점검'을 완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추워진 날씨로 전열난방기 사용이 많아져 화재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노래연습장과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이 예상되고 있는 관내 PC방을 중심으로 점검

할 계획이며, 대중여가시설 밀집지역인 서신동, 중화산동, 효자동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화재 시 대피안내, 소방·전기 안전시설 완비, 업소 내 주류 판매·제공 행위, 청소년 시간 외 출입여부, 폭력성이 짙은 청소년 이용불가게임 운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지정 조치하고 위법 적발건은 경찰서 통보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고창 AI발생 계열화사업자 방역위반 조사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고창 오리농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 해당 농장이 이른바 대규모 축산기업 산하인 계열화사업자 소속 육용 오리농장을 주목하고 해당계열사 사육농장 전체에 대해 방역점검에 들어갔다.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합동으로 해당 계열사 소속의 모든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충남 금산, 전북 임실, 전남 무안 등 종오리농장 3개소, 충북 진천, 전북 정읍 부화장 2개소, 전북 군산 사료공장 1개소, 전북 부안 도축장 1개소 등 총 7곳이다.

정부 합동 조사반은 관련법령에 따른 사전 방역조치 부실 등 문제점 발

견시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AI가 발생하는 계열사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계열사 소속 농가 출하 도축장 AI 검사비율을 현행 도축장 출하 농가수 10% 검사에서 20%로 2배 강화하고, AI 2회발병시 내리던 계열사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을 앞으로는 한 번만 AI가 발생하더라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AI 발생 계열사 소속 전 농가에 대해 일제 AI검사(오리 정밀검사, 닭 임상검사 및 필요시 간이키트 검사)를 의무화하고, AI 발생 계열사와 소속 농가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정부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뉴시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